

《라루스 프랑스어 대사전(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에

대한 소고

김현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1. 머리말

프랑스는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의 두 전통이 면면히 흐르는 나라로서 인문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발달해 있다. 고전어로 기록된 엄청난 양의 문헌 자료를 독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사전이 필수였고, 인문학자이자 인쇄업자였던 로베르 에티엔(R. Estienne)이 1539년에 최초로 프랑스어를 표제어로 한 이개어(二個語) 사전 《프랑스어 라틴어 사전(Dictionnaire François-Latin)》(Paris)을 편찬하고 제작하였다. 수많은 문헌을 통해 언어를 연구하는 전통은 자연히 문어 위주의 언어 연구를 탄생시켰고, 그 결과 문헌학, 문법과 언어학이 나란히 발달했다. 그리고 문헌 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해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정본의 확립과 문헌학적 기반에 근간을 둔 사전 편찬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아울러 16세기에 프랑스어 문법이 문어에 기초하여 기술 및 정착되었고, 상류층의 올바른 용법(bon usage) 개념이 언어 규범으로 확립되면서 사전 역시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였다. 상류층의 언어 관행인 문어에 기반을 두고 올바른 용법을 통제하는 문법서와 사전만이 편찬되었고 출간이 허용되었다. 언어는 곧 프랑스 사회의 신분과 교양을 상징하는 표지였으므로, 정확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곧 교양인이요, 엘리트였다. 그러므로 사전에 선별되어 기술되는 단어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정신의 결정체였다. 이러한 프랑스 사전의 전통하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전들이 출간되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라루스 프랑스어 대사전(*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1970~1978, 이하 ‘라프’)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놓고 고찰하면, 특징과 의미가 잘 부각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외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글¹⁾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라프의 언어학적 고려와 사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전의 특성을 잘 부각시키려면 이와 비슷한 부류의 다른 프랑스어 대사전, 예컨대 로베르(Robert)사의 프랑스어 대사전인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사전(*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1950~1964, 이하 ‘로프’)과 비교, 대조 분석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두 사전의 사전 편찬 방식과 미시구조 기술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라프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므로 본격적인 비교 작업은 차후로 미루고, 우리의 논의 전개에 필요한 경우 로프를 원용할 것이다.

2. 배경

언어사전은 한 언어에 속하는 단어나 어휘에 대한 언어 정보를 기술하지만, 백과사전은 단어가 지칭하는 언어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사회적·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명칭은 ‘백과사전’이지만 언어 외적 사물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의 기능을 겸비한

1) 하영동(2012) 참조.

사전도 있다. 근대에 들어와서 언어사전보다 백과사전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이자 문인인 디드로(D. Diderot)와 달랑베르(d'Alembert)가 편찬한 《과학, 예술, 직업 백과사전(*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et des arts et des métiers*)》(1751~1780)이 의미심장한 사전이다. 19세기에 나온 대표적인 백과사전은 《19세기 대보편사전(*Grand Dictionnaire universel du XIX^e siècle*)》(1866~1876)이다.²⁾ 이 사전은 라루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15권(보유 2권)의 백과사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³⁾ 현대에 와서는 《라루스 대백과사전(*Grand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Larousse*)》(전 10권, 1982~1985)이 대표적인 백과사전이다.

19세기에 출간된 주목할 만한 프랑스어 대사전은 《에밀 리트레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d'Émile Littré*)》(1863~1872)이며, 4권(보유 1권)으로 출간되었다. 보통 《리트레 사전》으로 불리며, 17~18세기의 고전주의 문학 프랑스어를 기술한 규범적 언어사전이다. 이 언어사전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 로프로서 6권(보유 1권)이 출간되었다. 20세기에 출간된 최초의 프랑스어 대사전으로 보통 《로베르 사전》으로 불린다. 이를 축약한 것이 《소로베르 사전(*Petit Robert*)》(1967)이다. 이 소사전은 언어사전과 고유명사사전으로 분책되어 있다. 풍부한 문학 작품에서 발췌한 많은 예들을 출전과 함께 그 의미의 출현 연도를 적시하고 있고, 따라서 의미 배열은 시대적이다. 로프에 뒤이어 출간된 라프는 기존의 라루스 사 백과사전 편찬 전통과는 달리 순수하게 언어 기술을 목적으로 만들어

2) 18. 19세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럽의 몇몇 열강이 식민제국을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와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엄청난 새로운 지식 요구가 있었고, 이 지식 폭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일반적인 도구가 백과사전이었다.

3) 《삼화가 곁들여진 라루스 소사전(*Petit Larousse illustré*)》은 이 대사전을 한 권의 사전 형태로 축약해서 만든 것이다. 프랑스인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비치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린 사전이었다. 이 역시 순수한 언어사전이라기보다는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이 혼합된 형태였다. 홍재성(2008) 참조.

진 사전이다. 그 이전에는 백과사전이거나 언어사전과 백과사전 겸용이었고, 순수하게 언어만을 다룬 사전은 라루스사에 없었다. 그래서 라프는 라루스사 편찬 사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사전 기술의 근간은 역사적 어원을 제시하는 전통적 사전 편찬 방식이었으나 구조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많이 받아들여 편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의 어휘보다는 19, 20세기 어휘를 광범하게 수용하여 의미를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이러한 공시구조적 사전 편찬의 원리는 라루스사가 펴낸 《현대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u français contemporain)》(1966)을 통해 실험하고 검증한 바 있다. 이 사전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가정과 방법을 수용하여 편찬된 특징적 사전이다. 라프는 7권으로 된 순수한 언어사전이다. 대사전이지만 표제어 수는 74,000개이고, 의미의 정의는 약 30만 개이다. 한 단어당 평균 4~5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대사전에 비해서 표제어 수는 비교적 적지만 각 단어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욱 자세하게 의미를 분할하여 기술했다. 한편 라프를 한 권으로 축소한 《렉시스(Lexis)》(1975)는 단권이지만 표제어가 76,000개이다.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프는 표제어 수보다는 상세한 언어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나온 가장 기념비적 프랑스어 언어사전은 《프랑스어 보고 전자사전(TLFi, 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nformatisé)》(1970~1994)이다. 총 16권이며, 19~20세기 언어사전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정의, 용법의 분류, 예문, 어원 등 구조언어학의 기여를 반영하는 동시에 문헌학적 전통을 따르면서 풍부하고 세밀하게 총체적인 언어 정보를 담은 사전이다. 현재는 디지털화하여 전자사전(TLFi)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리하여 1960~1980년대의 프랑스는 사전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새로운 언어 대사전들이

4) 참고로 《현대 프랑스어 사전》의 표제어는 25,000개, 《소로베르 사전》의 표제어는 59,000개이다.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니면서 출간되었다.

3. 《라루스 프랑스어 대사전》의 사전학적 특징

다른 대사전과 다른 라프의 주요 특징을 여섯 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공시사전이지만 역사적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출간된 어원사전에서 많은 역사적 정보를 가져와 수록하고 있다. 둘째로 구조주의적 언어관을 받아들여 이를 사전 편찬의 언어 기술에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주의적 언어관이란 단어의 가치는 관계의 망 속에서 정의되며, 이 관계망은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로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라프는 단어의 구별된 각 의미에 대해 많은 유의어와 반대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셋째로는 동형어 구별, 의미 구분과 정의를 형태통사적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예문을 기존의 문헌에서 인용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집필자들이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통적인 대사전, 예컨대 로프의 예문이 모두 문학 작품과 그 외의 문헌에서 인용된 것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다섯째, 문법과 언어학의 난을 별도로 두어 언어/언어학 백과사전의 메타언어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⁵⁾ 그 어떤 언어사전에도 이처럼 상세한 메타언어적 전문 기술은 없다.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전 편찬자들이 출판사 소속 전문 사전 편찬자가 아니라 대학의 교수, 언어 학자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사전에 제시한 원리들과 사례를 중심으로 미시구조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자.⁶⁾

5) 최근에 와서는 사전학이론(metalexigraphie), 사전학(lexicographie), 사전편찬학(dictionnaire)을 구별한다.

6) 발음 정보는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고, 발음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을 병기한다. 'auto[ɔto 또는 oto]'.

3.1. 역사적 정보

표제항에 대한 역사적 정보는 어원과 단어 의미의 최초 출현 연도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문헌학적 전통이 잘 확립되어 있고, 문헌의 언어와 어휘 연구가 철저하여 이 같은 정보를 수집, 분류한 뒤 그 용법을 세밀하게 제시한다.⁷⁾ 역사적 정보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별도로 자세히 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다.

어원 정보

표제 단어의 어원과 의미 변화를 기술한 부분은 기존의 어원사전과 연구를 대부분 참조하여 서술한 역사적 정보다.⁸⁾ 서문에 나오는 대강의 기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어원은 미시구조 기술의 맨 앞에 짧막하게 나온다. 어원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probablement, sans doute, peut-être*(아마, 틀림없이, 필시) 등의 부사를 사용하여 어원 기술이 정확하지 않음을 표시한다. 그리고 기원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것(*origine obscure*)은 어원에 대한 가설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기원을 알 수 없다고 지적한 것(*origine inconnue*)은 역사적 분석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에 대한 사전적 기술은 새로운 설명은 별로 없고, 대부분 기존 어원사전의 내용을 수용한다. 바르트부르크(W. v. Wartburg)의 《프랑스어 어원사전(FEW)》이나 블로크와 바르트부르크(Bloch & Wartburg)의 《프랑스어 어원사전(*Dictionnaire étymologique*)》의 최종판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두 어원사전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도자 뒤부아 미테랑(Dauzat-Dubois-Mitterand)의 《신프랑스어 어원사전(*Nouveau Dictionnaire*

7) 이러한 용례들은 로프에서 철저히 예문에 번호를 붙여 출전을 관리한다.

8) 어원 정보는 거시구조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는데, 형태가 동일한 두 단어의 어원이 다르면 동형어로 취급한다. 반면 어원이 같더라도 용법이 완전히 다르거나 의미가 다르면 이를 역시 동형어로 취급하는데, 이는 공시사전이기 때문이다.

étymologique)》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의미 출현 연도

각 단어와 의미가 최초로 출현한 연도를 표시하였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의 문헌학적 연구 결과와 지식을 반영한 것이다. 연도가 확정된 것은 연도 뒤에 단어나 의미가 출현한 작품명, 작가명, 또는 사전 학자의 이름을 제시한다. 항목 기술이 길어지거나 장황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고 서지만 간략히 제시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출처 정보를 얻도록 배려했다. 알파벳 배열과 색인을 참고한 사전은 고드프루아(Godefroy)의 《고대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e l'ancienne langue française et de tous ses dialectes du IX^e au XV^e siècle*)》과 위게(Huguet)의 《16세기 프랑스어 사전(*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du XVI^e siècle*)》(7권)이다. 그리고 브뤼노(Brunot)의 《프랑스어사(*Histoire de la langue française: des origines à nos jours*)》도 참고 서지로 제시하였다. 중세의 정확한 연도를 확정할 수 없으면 <12세기>, <13세기 초> 등으로 표시하고, 편집된 작품 연도 앞에 ‘약, -경’을 뜻하는 *v.(ers)*를 첨가한다. 예컨대 <*v. 1050, Vie de saint Alexis*> 같이 적는 것이다. 정확한 출전의 연대 없이 시기를 표기한 것은 학자들 사이에 출현 연도에 이견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테베 이야기(*Roman de Thèbes*)》의 연도를 도자 뒤부아 미테랑 어원사전은 12세기 초, 레비(R. Lévy)는 1156년경, 《프랑스어 어원사전》은 1165년경, 해리스(R. Harris)는 1180년 이후로 제시한다. 이때 연대 차가 있으므로 어느 한 연도를 선택하기 어렵지만 12세기인 것은 확실하므로 12세기를 대표적인 연대로 적는다. 한 단어가 여러 텍스트에 출현하는 경우, 연대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면, 역시 시기로 표시한다. 예컨대 《테베 이야기》와 《님의 수레(*Charroi de Nîmes*)》(1150년경 작성)에 나오는 어휘는 <12세기>로 표시한다. 최초 의미가 연대의 선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없는 여러 작

품에서 출현할 때도 이 연도 표기 체제를 따른다. 예컨대 《제3서(Tiers Livre)》(1546)에 의미 1.이, 《일반해부학(Anatomie universelle)》(1561)에 의미 2.가, 《회한(Jes Regrets)》(1558)에 의미 3.이 출현하는 경우 그 의미들에 대해 각각의 연도를 표시하지 않고, 1550년경에 이들 세 의미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의미 1-3., 16세기 중엽〉으로 표시한다.

현대의 신어도 마찬가지로 출현하는 연도를 확정하기는 다소 어렵다. 기존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문헌학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았거나, 구어로 소통되면 연도를 확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집필자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시기 표시로 만족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이면 〈20세기 중엽〉, 〈20세기〉 등으로 적는다. 신어의 출현 시기가 상당히 분명하면 be-bop 〈1945년경〉, sputnik 〈1957. 10월〉와 같이 대략적인 연도나 정확한 연도를 적는다.

상세 연도를 표시할 수 없거나 출전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대강의 연도와 시기를 적거나, 참조 서지만을 적는다. 〈1701, Furetière〉, 〈1583, Bloch-Wartburg〉와 같다. 전자는 푸르티에르 사전의 단어나 의미의 출현 연도를, 후자는 블록와 바르트부르크 어원사전의 출현 연도를 가져다 표시한 것이다. 〈17세기 [전반], Guez de Balzac〉, 〈19세기 중반, Baudelaire〉 같은 시기 표시도 이들 작가 작품의 저작 연도는 각기 1624~1654년, 1837~1867년이지만, 모든 작품을 일일이 명기하지 않으며 대강의 시기를 편의상 적고, 작품의 구체적 서지는 적지 않은 것이다. 역시 사전 기술을 복잡하지 않고 보기 쉽게 만들려는 배려이다. 모든 출전 문헌을 적은 역사적 참고 서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가장 풍부하고 완벽한 것(물론 《프랑스어 보고 사전》 이전에 출간되었기에 이 사전을 제외하고)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어휘나 의미의 출현 연도를 수정, 보완한다.⁹⁾

9) 제1권 서문 뒤의 XCI-CXIX와 7권 Z 항목 이후의 Bibliographie des Matériaux utilisés pour la partie historique du Dictionnaire(6634~6930)는 이 사전의 역사 정보 기술에 사용된 자료 참고 서지이다.

어휘의 형태어휘적 기반

어휘 전체의 기반이 되는 형태론적 체계를 아주 상세히 분류하여 철저히 기술한 부분으로서 역시 구조주의 언어학 기반에서 통시적, 공시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접미사는 대중 라틴어나 게르만어에서 기원하고, 어떤 것은 이탈리아어나 프로방스어에서 유래하고, 식자어(識者語)는 여러 시기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어휘 형성은 역사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원을 고려한 사전은 이 부분을 반영한다. 또한 라프는 근대/현대 프랑스어를 다루므로 새로운 어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즉, 신어 생성의 생산적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현대의 화자는 단어 구성요소의 관계에 대한 형태, 의미, 통시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거나 신어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에 대한 형태론적 지식도 사전에 기록한다.

어휘 단위의 구성을 다루는 제1부는 통시적 어휘형태론이다. 품사별로 접두사, 접미사를 모두 열거하고 라틴어나 그리스어 기원의 접사를 표로 제시하며, 그 의미와 예를 들고 있다. 제2부는 공시적 어휘형태론을 다룬다. 여기서도 각종 접미사법과 이를 통한 품사별 전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예시한다. 그리고 접두사법도 역시 품사별로 자세히 접두사를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표로 제시한다. 합성의 각종 방식도 분류하여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를 들고 있다. 동사 어기 기반 합성, 명사 어기 기반 합성 등의 합성에 대한 자세한 공시적 기술과 설명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개별 단어에 대한 이러한 형태론적 기술 역시 각 항목의 미시구조 기술에 포함된다. 이들은 현재 출간된 어떤 형태론 텍스트보다 자세하고, 철저한 기술이어서 이 사전은 언어학자들의 역량을 총집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문법 정보와 통사 정보

미시구조에 포함되는 주요 언어 정보들과 그 배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 사례들은 라프의 서문에 나오며, 설명을 위해 여기에 다시 예시한다.

문법 범주

문법 범주는 품사, 성, 수, 각 품사의 구표현(locution) 등을 여러 문법 정보로 표시한다. 수는 유표인 복수(pl.)만 표시한다. 문법 범주가 다르면 별개의 자을 어휘 단위로 취급하되 부표제항에 배치한다.

automateur adj.

- ▶ automateur n. m.
- ▶ automatrice n. f.

convention n. f.

- ▶ De convention loc. adj.
- ▶ conventions n. f pl.

이러한 배열 방식은 분할배열과 재배열로서 형태통사적인 파생이나 연관성을 지닌 어휘나 표현을 표제어의 부표제어로 한 항목 내에 통합, 배치함으로써 어휘 관계를 쉽게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형태상으로 연관된 단어들 이 표제어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 배열되어 그 관계를 쉽게 인지할 수 없다.

의미 분할과 배열

분할된 의미의 배열은 몇 가지 도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 배열은 로프처럼 출현 연도 순서가 아니라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다빈도 용법부터 먼저 배열하는 것이다.

carte

- I. Morceau de carton(XV^e s.)
- II. Carte à jouer(1398)
- III. Carte de géographie(1636)

‘놀이 카드’의 의미 II가 의미 I보다 먼저 출현했으나 더 일반적인 의미인 ‘종잇장’이 먼저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전은 역사적인 배열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특히 의미를 분할, 배열하는 방식은 문법 범주와 구문에 따른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로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분포구조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해서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사 croire를 보자. 먼저 타동사 v.tr., 간접 타동사 v.tr.ind., 자동사 v.intr., 대명동사 v.pr.의 각 범주에 따라 동사를 분할하고, 그 하위에 구문에 따라 배치시킨다.

Croire v.tr.

- I. croire quelque chose, croire et infinitif, croire que
- II. croire quelqu'un
- III. croire quelqu'un ou quelque chose

▶ v. tr.ind.

- I. croire à
- II. croire en
- III. croire à ou en
- IV. croire de

▶ v.intr.

▶ se croire v.pr.

이처럼 문법 범주에 따라 분할한 다음 다시 구문과 선택제약에 따라 분할되는 의미를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타동사에서는 목적어로서 비인물명사, 부정법, que 절이 오는 용법, 목적어로서 인물명사가 분포하는 용법, 인물명사나 사물명사가 분포하는 용법으로 분할한다. 간접 타동사에서는 전치사 à와 en, 이 두 가지가 함께 분포하는 용법, 그리고 전치사 de가 오는 용법으로 하위분류한다. 이처럼 의미를 통사적 기준과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히 기술하는데, 이는 《현대 프랑스어 사전》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이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분할배열된 항목의 기술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성격(인물명사, 비인물명사 등)이 로프보다는 훨씬 세밀하다. 라프는 어휘 요소는 문장 내에서 다른 어휘 요소와 맺을 수 있는 통합 관계에 의해 그 정체성과 특징이 규정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와 관련된 통사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사전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전과 크게 대조된다.

3.3. 정의와 예문

용법 또는 의미는 예문을 통해 제시된다. 단어의 의미가 담화의 문장 내에 존재한다고 보는 용법 중심의 언어관으로 예문 작성에 많은 공을 들인다. 그래서 의미의 정의는 단어가 출현하는 통사 연쇄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 정의를 교체해도 통사적 구문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의미의 항정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의미 분석은 문장 내 단어의 분포와 관련된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구조문법의 분석 방법에서 착안한 것이다. 자동사 용법은 자동사로, 타동사는 타동사로, 간접 타동사는 간접 타동사로 정의하는 방식을 따른다.

v. tr. ind.

convenir à : avoir de la convenance avec

I. 사물을 가리키는 주어와 함께

convenir à quelque chose: être adapté à cette chose

II. 생물을 가리키는 주어와 함께

avoir les dispositions ... pour telle activité

III. 비인칭으로 사용

il est souhaitable de ou que

convenir de, que : tomber d'accord sur, que

I. 사람(들)을 가리키는 주어와 함께

II. 비인칭으로 사용

▶ v. intr.

venir, comparier ensemble

▶ se convenir v. pr.

être bien assorties

이러한 분포 분석은 정의의 의미를 보여주는 예문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각 의미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정의하려고 노력한다. 완전한 정의를 목표로 각 용법에 고유한 주된 의미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예문은 기술자나 화자의 언어의식 또는 언어직관을 통해 나온 구어로 만들거나 대부분은 유명 저자의 작품에서 인용한다. 로프는 오직 문학 작품의 언어를 우위에 두고 이들 작품의 예문을 주로 발췌하는 전통적 방법을 고수한다. 그러나 라프는 이러한 사전 전통과는 결별하고, 일반 대중들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는 기호체계라는 구조언어학적 가정을 수용한다. 라프는 19~20세기 프랑스어를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17~18세기 고전주의의 언어를 예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어에 유입된 전문기술이

나 과학지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어휘도 표제어로 선택하므로 그런 종류의 문헌 예문도 참조하여 사용한다. 근대 작가들은 19세기 후반의 작가들과 20세기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일반 어휘와 비교해서 개인적이거나 특이한 용법을 보이는 경우에만 용례로 인정하여 표상한다. 라프는 사전의 항목기술이 복잡하게 보이지 않도록 작품명, 판, 쪽수 등의 자세한 출처를 인용문에 달지 않는데, 이것 또한 로프와의 차이점이다. 또한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포함하여 일상 프랑스어에서 인용하거나 사전 편찬자의 언어직관에 입각하여 만든 예문을 많이 사용한다.

3.4. 의미 관계

일단 표제어의 의미를 모두 기술한 다음에 표제항의 맨 마지막에 표제어의 어휘의미 관계를 유의어와 반대어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이들 단어는 미시구조에 제시한 분할의미의 의미 배열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그 수가 상당히 많아서 유의어와 반대어로 의미 관련성을 충분히 기술함으로써 개념이나 관념의 연관성을 표현하는데, 이 역시 의미의 계열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어휘의미는 그 관계들이 갖는 의미장 또는 어휘장 내에서 결정된다는 구조주의적 어휘론의 이념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들은 사물, 개념을 환기시키며 단순한 어휘 유추의 범위를 넘어서는데, 이 역시 어휘와 의미의 유추 관계를 기술한 로프를 능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3.5. 문법과 언어학

이 사전의 특징 중 하나가 문법과 언어학란에서 해당 사항을 백과사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백과사전식 항목 내에 언어이론의 모든 측면을 기술하는데, 이는 단어/용어의 용법과 언어체계의 이해에 필요한 필수적인

언어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20세기 프랑스와 세계 언어 연구의 엄청난 발달 결과를 반영하여 어휘 측면뿐 아니라 언어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두고 기술한다. 예컨대 음성, 철자, 작시법, 형태론, 통사론 등의 여러 층위에서 현재 상태와 그 역사적 발달 과정을 기술하고, 이론적인 논의 전개를 논란 사항과 함께 제시한다. 이들 항목의 대상자 또는 사용자는 학자나 연구자, 교수, 전공 학생, 비전문가, 프랑스어 교사, 교양 프랑스인 등이다. 언어학은 총체적 과학으로서 다양하게 발전하므로 수많은 문헌 자료들이 생산되는데, 언어학적 정보에 대한 개인적 역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합시킨 것이다. 특히 문법적인 논란과 의문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술적 토론을 유도한다. 용어의 이론적 비판, 정당성 확인, 역사, 언어학적 기준, 적용 한계 등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어의 해당 항목에 대한 백과사전은 당시의 대학 교수 및 연구자,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전의 가장 큰 혁신이자 특징이다. “이 사전의 혁신 사항은 문법과 언어학의 백과사전이라는 점이다.”(라프, p.VI). 예컨대 accent에 대한 일반어로서의 사전 기술을 한 후에, <문법과 언어학(Grammaire et Linguistique)>이라는 별도의 난에서 이 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문법적 기술을 통시적·공시적으로 4단 2쪽에 걸쳐 풍부하게 한다. 앞부분(Etat actuel)에서는 공시적 언어현상을 기술하고, 뒷부분에서는 역사적인 발달(Historique)과 이론적 논의를 상술한다.

이 전문적인 언어학 부분은 170개의 항목을 기술한 것인데, 이는 다른 언어학 전문사전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상세하고도 자세한 언어학적, 문법적 기술이다. 아울러 연구사 또는 논의의 역사, 논쟁점, 이론과 학자들을 기술적, 이론적, 역사적 세 측면에서 논의한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언어학자이자 문법자인 보나르(H. Bonnard)의 작품으로서 600여 쪽에 달하는 상세한 설명이다. 예컨대 뒤부아 외(1973)의 《언어학사전(Dictionnaire

de linguistique)》의 ‘aspect(상, 相)’ 항목을 보면, 이 《언어학사전》(13×19cm 판본)은 1쪽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 분량은 1단을 조금 넘는다. 또한 푸즈아즈(Pougeoise, 1996)의 《프랑스어 교육사전(Dictionnaire didactique de la langue française)》(17×25cm 판본)의 ‘aspect’ 항목은 1쪽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 분량은 2쪽에 걸친 3단 분량이다. 그러나 로프의 기술을 보면, 19×25cm 판본에 1쪽이 2단으로 구성되고, 기술 분량은 4쪽에 걸쳐 있다. 앞의 두 언어학과 문법사전은 항목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사실적 기술, 간단한 예를 제시하는 데 비해 로프는 해당 언어 현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론적 논쟁사, 현재의 상태에 대한 기술을 포괄한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전을 편찬하고 기술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이거나 연구자들이기 때문이다. 주요 항목을 기술하고 편찬한 사람들은 30여 명에 달하는데 집필/편집 대표자들은 낭테르 대학의 교수진인 길베르(L. Guilbert), 라간(R. Lagane), 니오베(G. Niobey)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사전 편찬자들의 사전 편찬 방식은 이 사전에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4. 사전의 실례 분석

그러면 로프의 ‘accepter’의 미시구조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라프의 주요 특징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자.

표제어 ‘accepter’ 뒤에 발음을 병기하고, 문법 범주 타동사 v.tr.을 제시하고, 괄호 속에 어원정보를 제시한다. 즉, ‘라틴어 acceptare’를 제시하고, 파생 의미 관계로서 ‘accipere의 빈도 동사’를 적고, 의미 ‘recevoir’(받다)를 제시하고, 최초 출현 연대 ‘14세기’를 명기한다.

다음으로 미시구조 내의 의미 분할, 정의와 배열을 보자. accepter의 의

accepter [akseptɛ] v. tr. (lat. *acceptare*, fréquentatif de *accipere*, recevoir; XIV^e s.). 1. Consentir à recevoir ou agréer ce qui est offert, proposé : *Accepter une place. Accepter à déjeuner, à dîner. Ils insistèrent vivement pour me faire accepter leur offre* (Lamartine). || *Spécialem.* S'engager à payer une traite au moment de son échéance. || Avec un sens affaibli, entre dans des formules de politesse : *Veillez accepter mes hommages.* || 2. Laisser s'accomplir quelque chose qu'on pourrait empêcher : *Avez-vous ou non le droit d'accepter qu'un homme tel que M. Puybaraud [...] vous sacrifie les fruits de son apostolat?* (Mauriac). || 3. *Accepter quelque chose, accepter de faire quelque chose, consentir à ou à faire ce qui est proposé : Il apportait ses nippes à raccommoder et elle acceptait cette besogne* (Flaubert). *Il a accepté de présider la séance; et absol. : Je proposai à Garcia de jouer aux cartes. Il accepta* (Mérimée). || *Spécialem.* Consentir à accomplir ou à subir quelque chose de pénible, de dangereux : *Accepter le combat. Accepter la mort pour sauver les siens.* || *Accepter le défi, s'engager à accomplir ce dont on vous disait incapable.* || 4. Consentir à supporter avec résignation : *Un homme se façonne à son art, il accepte la vulgarité de la vie* (Balzac). || 5. Se déclarer satisfait de, tenir pour valable : *Accepter des excuses. Je ne peux pas accepter votre interprétation de ce texte.* || 6. *Accepter quelqu'un, l'admettre au sein d'un groupe, d'une famille, à tel ou tel titre : Accepter un nouvel ingénieur comme collaborateur. Accepter pour gendre un garçon sérieux.* || *Absol.* Agréer comme époux : *Elle l'avait accepté, le sachant riche* (Maupassant). || *Spécialem.* *Etre accepté, être considéré comme l'un des leurs par les membres d'un groupe : Il a été aussitôt accepté par tous les parents et amis de sa femme.* || 7. *Chose, situation, etc., acceptée, considérée comme échappant désormais à toute discussion : Leur liaison ne tarda pas à être une chose convenue, acceptée* (Flaubert).

● **SYN.** : 1 agréer, recevoir; 2 permettre, souffrir, subir, supporter, tolérer; 3 acquiescer à, condescendre à, daigner, se prêter à, vouloir bien; 4 endurer, se résigner à, supporter; 5 admettre, souscrire à; 6 accueillir, adopter, agréer, recevoir; 7 admettre, recevoir. — **CONTR.** : 1 décliner, dédaigner, refuser, rejeter, repousser; 2 empêcher, interdire, refuser; 3 refuser, repousser; 5 décliner, récuser, refuser; 6 bannir, écarter, exclure, rejeter, repousser, répudier.

[그림 1] 표제어 ‘accepter’

미를 7가지로 제시하는데, 주로 구문과 목적어 명사의 분포를 고려하여 의미를 분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특히 목적어 명사의 의미 부류를 존중하여 제시한다. 구체적 명사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류 표시로 사람은 *quelqu'un*, 사물은 *quelque chose*로 분포 명사를 지시한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 1.에서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의

미를 갖는 동사와 의미와 목적어를 같이 적어 'accepter une place, accepter à dîner'와 같이 제시한다. 그리고 라마르틴느(Lamartine)의 작품에서 인용한 예문을 제시한다. 의미 3. accepter quelque chose, 의미 6. accepter quelqu'un도 목적어에 분포하는 명사를 구분하여 의미를 세분한다. 분포하는 명사가 제약이 있으면 구체적 명사 사례를 제시하여 통사구로서 자유 구문을 구성하되 마치 연어처럼 쓰일 때의 동사+명사의 결합 연쇄를 보여 주고, 그때의 의미를 제시한다. 의미 3. accepter le combat, la mort, 의미 5. accepter des excuses에서 사용된 목적어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리 정의된다.

그리고 구문이 다르더라도 의미가 분할할 정도의 차이가 없으면 한 의미하에 구문을 나열한다. 의미 3. accepter quelque chose, accepter de faire quelque chose와 같은 경우이다.¹⁰⁾ 의미 6. accepter quelqu'un의 구문에서는 수동 구문 quelqu'un être accepté의 용법을 기재하는데, 구문 변형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점을 보여 준다. 이는 '회원,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다'의 뜻으로 의미를 풀이한다. 의미 7.은 과거분사(형용사)로 사용되어 chose, situation을 수식하는 경우(수동 용법) 이 동사의 의미를 정의한다. 또한 이 동사가 목적어 없이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예도 보여 준다. 의미 3. Il accepta. (quelque chose)와 의미 6.이 그것이다. 이 동사의 구문을 명시적으로 표상하지 않고 예문을 통해 보여 주는 것도 있다. 예컨대 의미 6.은 accepter quelqu'un comme, pour quelqu'un으로 구문을 표상할 수 있지만, 이를 명백하게 설정하지 않고, 명사 분포를 통해 보여 준다. Accepter pour gendre un garçon sérieux. 이처럼 문맥, 맥락 내에서 갖는 단어의 용법을 중시하여 그때 한정되는 정확한 의미를 보여 준다.

10) 그러나 부정법 대신에 절이 오는 accepter que(직설법, 접속법) 구문과 그 용법이 누락되어 있다.

예문

예문은 작가의 작품에서 인용한 것과 집필자가 직접 만든 예문이 적절히 섞여 나온다. 예문은 용법을 정확히 보여 줄 수 있는 구문으로 구성된 것을 이용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 의미 3.에서 accepter de faire quelque chose의 구문은 예문 Il a accepté de présider la séance.로 암암리에 보여준다. 그리고 (...)는 인용된 예문 중 불필요한 삭제된 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작가의 이름만을 제시하고, 작품명이나 출처의 쪽수는 제시하지 않는다. 모리야크(Mauriac), 발자크(Balzac), 플로베르(Flaubert), 모파상(Maupassant) 같은 유명 작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예문의 대체적인 길이는 전체 문장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그리 길지 않다. 이러한 예문 제시 방식은 작품과 인용 쪽수까지 그 출전을 자세히 제시하는 로프와는 아주 다르다.

의미의 배열

가장 일반적인 용법부터, 구체적인 의미부터 배열한다. 그리고 분할된 각 의미 내에서 좀 더 세분화된 하위 의미나 비유적인 의미는 나중에 배열한다.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되거나 전문화된 의미는 Spécialem.으로 표시한다. 예컨대 의미 1.의 s'engager à payer une traité au moment de son échéance(만기 시에 어음 지불을 이행하다)가 그것이다.

유의어와 반대어

미시구조의 본문 마지막에 정의한 각 의미에 대해 상호 참조 번호를 붙인 유의어를 제시한다. 분할한 7개의 의미에 대한 유의어를 일곱 부류로 나누고, 각 부류에 유의어를 알파벳 순서로 여럿 제시한다. 예컨대 유의어(SYN.)는 의미 1.에 대해서 agréer, recevoir, 의미 2.에 대해 permettre, souffrir, subir, supporter, tolérer 등 모두 23개의 유의어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의미에

상응하는 반대어(CONTR.) 역시 다양하게 제시한다. 반대어가 없으면 제시하지 않는다. 의미 1.에 대한 반대어로는 *décliner, dédaigner, refuser, rejeter, repousser*, 의미 2.에 대해서는 *empêcher, interdire, refuser*를 제시한다. 반대어의 수도 무려 19개나 된다. 이처럼 유의어와 반대어를 다양하게 많이 제시하는 것은 역시 계열적 관계를 통해 의미를 정확히 이해시키려는 구조적 배려이다. 로프에서는 이러한 계열 관계보다는 일종의 개념이나 의미의 연상장에 속하는 관련 단어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유추(*analogie*) 개념을 이용해서 단어를 제시한다. 예컨대 *voile*(돛, 돛단배)에 대해 해양용어인 *amener, enverguer, éventer, ferler, gambier, larguer* 등의 단어가 같은 항목 내에 연관 단어로 제시되는데, 이는 연상 관계로 이루어지는 연상장에 가깝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라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사전 편찬의 원리는 사전의 서문에 나오지만, 실례를 가지고 다른 대사전, 예컨대 로프와 비교, 대조 분석을 하여 라프가 지닌 사전학적 특징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다른 대사전을 가지고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비교하면 한국어 대사전 편찬에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사전을 축약하여 소사전을 만들 때 정보를 선별하고, 사전정보 기술을 보다 간략하게 하는 원리와 방식 역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언어의 핵심적 중요 정보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풍부하게 언어 사용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전 편찬자들의 목적일 것이다.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이 폭증하는 시대에 걸맞은 사전의 끊임없는 변신 역시 중요하고, 이를 빨리 따라잡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언어 자료와 재원을 전산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참고 문헌

- 김현권(2008), 프랑스 사전전통과 TLF. 《방송대논문집》, 제45집, 1~13.
- 하영동(2012), 라루스 언어 대사전, GLLF의 사전학적 특징과 한계, 《한국프랑스학논집》, 80, 235~266.
- 홍재성(2008), 삽화가 곁들여진 라루스 소사전(*Le Petit Larousse illustré*), 《개념과 소통》, 창간호, 235~244.
- Bonice, L.(2005), *Le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1971-1978)*,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o.137, 39~49.
- Corbin, P.(2008), *Quel avenir pour la lexicographie française?*, in P. Durand J. Habert B., Laks B.(éds.), *Congrès Mondial de Linguistique Française*, 1227~1250.
- Cormier, M. C. et Francoeur, A.(dir.)(2005), *Les dictionnaires Larousse, genèse et évolution*, Montréal: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Pruvost, J.(2005), *Quelques concepts opératoires lexicographiques à promouvoir au seuil du XXI^e s.*, *Études de linguistique appliquée*, no.137, 7~37.